Interview with The Rev. Hee Ku Yoon

212 목회자와의 대담

윤희구 목사와의 대담

윤희구 목사와의 대담

대담 : 황대우 (개혁주의학술원, 책임연구원)

지난 2012년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혁주의학술원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황대우 목사(현 고신대 교수, 진주북부교회 기관목사)와 윤희구 목사가 창원한빛교회 목양실에서 대담을 가졌다. 한국 장로교회와 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약 두 시간 동안 대담이 이루어졌다. 질문자는(Q) 황대우 목사이고, 답변자(A)는 윤희구 목사이다. 윤희구 목사는 현재 창원한빛교회 담임목사이며 대외적으로는 한국장로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기아대책 대북법인 "섬김과나눔" 이사장,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상임회장, 그리고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후원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고신대학을 15회로 졸업하고 고려신학대학원을 29회로 졸업하였고 1996년에는 미국 풀러(Fuller)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창원극동방송 초대운영위원장, 창원기독교연합회장, 고목협상임회장, 창원시21세기기독교운동 협회장, 고신교단총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같은 화려한 이력이 말해주는 것처럼 고신교단 안에서 뿐만 아니라 고신 밖에서도 고신의 이름을 빛낸 목회자중 한 사람이다.

Q 목사님께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회장으로 선출되셨고, 그 동안 한국장로교 100주년 기념사업도 하시는 등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연합 활동을 위해 구상하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 첫 번째로 한 것이 금년 1월30일 100주년 기념대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였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평신도가 모여 기도회를 했지요.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100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성동교회 앞 서울 미술관에서 개최하여 2500명 정도 관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주에서 자체적으로 약 한 달 정도 전시회를 했는데 그 곳에 저희가 사진을 약 50점 보내어 공동으로 전시회를 했습니다.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했던 전시회를 경남 창원에서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기 선교모습, 1회 총회 모습, 신사참배 하러 가는 사람들 사진들, 현재까지 사진 등 많은 사진이 있지만 약 120점을 전시 합니다. 그리고 100년 역사 다큐멘터리를 CD로 제작했습니다. 한국판은 45분짜리, 해외판은 40분짜리 두 개를 만들었는데, 영문판은 따로 제작했습니다. 소강석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새에덴교회에서 5천만원 후원한 것으로 제작되었고 앞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4월 7일 새문안교회에서 장로회 신학회를 개최한 것인데, 한장총이 제정지원을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상규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5월 11일 저녁에는 횃불선교회에서 신학대학 찬양대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은 한장총이 칼빈 탄생기념일인 7월 12일을 장로회의 날로 정한 이후 지금까지 3년째 계속 진행해 온 행사인데, 한장총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해 온 행사지만 금년에는 100주년이 있어서 영동교회에서 기념예배로 간소하게 치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주년기념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개최될 장소와 날짜는 확정되었는데, 9월 1일 오후 2시 잠실체육관입니다. 하지만 아직 순서자들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그렇다면 100주년기념대회가 올해 한장총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겠군요?

A : 네. 그렇습니다. 100년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면 100년 동안 많은 성장을 했지만 분열의 아픔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되는 200년의 역사는 화합과 연합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주장하는 1교단 다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9월 1일 총회개회예배를 하자고 하시는데 통합측과 백석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의 했지만 그 외의 교단들에는 결의가 안됐어요. 결의가 안 되면 시행이 불가능하잖아요.

Q 장로교의 여러 교단들의 상이한 반응이 혹시 WCC 문제와 관련된 갈등 때문인가요?

A : 그건 WCC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 이종윤 목사님 개인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Q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인 Refo 500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전 세계적인 연합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Refo 500에 총신이 가장 먼저 뛰어들어 아시아 대표를 맡게 되었는데, 이종윤 목사님께서 그와 무관하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을 따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 한국장로교회를 위한 이종윤 목사님의 공로는 많아요. 지금도 장로교역사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역사박물관은 꼭 있어야 합니다. 사진들을 계속해서 전시하고, 각 교회 50주년 화보 같은 자료들을 모으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놓아도 전시할 곳이 없다고 주지를 않습니다. 영등포교회에서도 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내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Q 연합을 위해서 고신에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밖에서 보는 연합과 관련해서 고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목사님께서는 교회연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고신 목사가 한장총과 같은 연합회 회장이 되니까 타 교단 목사가 할 때와 다르더라.' 혹 이런 평가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A : 연합을 잘 안한다는 시각입니다. 서울은 기독교연합회라는 기관은 없어요. 부산은 부기총, 경기총은 있는데 유독 서울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기총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연합회는 없어요. 서울시 자체가 교회연합 사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신들은 한기총이 연합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부활절연합예배 한번 하는 정도이지 경남처럼 복음화대회와 같은 행사는 안 합니다. 안하면서도 고신에 대해서는 연합사역에 대해서 뭐랄까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죠. 사실 여기도 호주 선교사 기념관 만드는 사업도 사실은 고신이 해야 합니다. 그거 아세요? 호주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반대 주문을 먼저 했습니다. 거기 영향 받은 사람들이 경남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고, 그 당시에 여러 노회가 있었지만 경남 노회가 유일하게 신사참배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고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하고 난 뒤에 최상림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구속되고 처형은 안 당하셨지만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셨지요.

호주에 스카치 교회에서 한국선교사를 파송 했는데 스카치 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민을 간 분들이 만든 교회에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후손들 다수가 지금은 호주 유나이티드 교회가 되겠지만 호주 멜버른의 스카치교회서 파송받은 데이비스(Davies) 선교사, 그 후예들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동네가 고신입니다.

Q 그럼 교회연합을 위해서 고신교단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거나 반대로 고신교단이 연합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앞서서 제가 말한 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좌우간 우리가 연합회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페이스대로 연합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합예배를 할 때 누구를 강사 초청하는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연합에 동참해야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회의 주체가 되어야 강사섭외도 계획적이고 좀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는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합회와 연합사업을 통해 복음이 심길 수 있는 틀을 만들고 한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시화 운동 같은 것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역의 연합 사업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를 거두는 것은 그 지역의 각 교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각 교회가 그 씨를 거둘 때 가만히 앉아서 공짜로 거둘려고 하는 생각은 안돼요. 적극적으로 연합운동에 나서서 그 운동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복음운동으로 끌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Q 목사님께서 이번에 한장총 총회장이 되면서 사단법인설립인가를 받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 말씀 해주시죠.

A : 처음에는 아예 그걸 못한다고 접어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경남에서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사단법인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예치금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누가 낼꺼냐 하는 것이 문제였죠. 제가 이사들에게 500만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이사 임직 마치고 나갈 때 새로 들어오는 이사가 500만원 낸 것으로 나가는 사람 500만원 주면 될 것 아니냐. 이사 임기 3년 동안 5천만원 모아서 경남성시화 사단법인 인가 받았거든요.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한장총 갔는데, 서울은 3억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 이번에 충청도 찬송가공회가 완전히 폐지되었잖아요. 찬송가공회가 서울시

로 들어오려고 하니 못 들어오게 하려고 돈 3억 준비하라 했던 것인데 이런 전례에 따라 한장총도 3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3억 마련하기가 어렵다 했더니 그럼 앞으로 예치금을 준비하겠다고 각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서 쓰고 사단법인설립허가 받았지요.

Q 앞으로 3억을 예치하기로 각서 쓰고 사단법인설립인가를 받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사단법인 설립의 의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 일차적으로는 사회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개별적인 단체가 아닌, 적어도 사회가 인정하는 공익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이기적인데, 이제 교회는 교회지만 개인 기업가들이 후원할 때 법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후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장총에 가입 청원하는 교단들에 대해 보다 더 엄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단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이종윤 목사님의 공이 큽니다. 지금까지 교단을 받아들일 때 먼저 장로교정체성위원회에서 신학과 신학교 커리큘럼을 점검하고, 또한 이단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점검해왔습니다만 이제는 회원교단을 받을 때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여 사회적으로 하자가 없는 교단만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한장총에 들어와 있는 교단은 적어도 건전한 교단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법인단체니까, 물론 조금 간섭은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이 하는 행사로 인정받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고 일종의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공익성을 보장 받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Q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대표회장으로 일하시면서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A : 한국에 장로교 교단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장총에 가입 할 수 있는 기준은 교단 교회 숫자가 100교회 이상이여야 회원 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100교회도 작지요. 우리가 200교회로 하자니까, 이미 가입되어 있는 교단 가운데 200교회가 안 되는 교단들이 있어서 그 교단의 총무들이 100교회로 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저는 200교회 정도로 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29개 교단인데 거의 100교회 이상이거든요. 물론 100교회도 안 되는 교단도 있지만 100교회 미만은 사실상 교단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죠. 저는 한국의 장로교회가 더 건실한 교단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교회의 분열과 분열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교회연합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전에 되풀이 되었던 분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좀 더 건전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기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 : 한기총은 태생부터 교회 연합 기구가 아닙니다. 교단들이 들어와 있지만, 교단 외의 단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령, CTS, 기아대책, NGO단체들이 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기총은 실제로 교회연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유일한 교회연합체로 인정을 받으려 하지요. 그런데 한기총은 완전히 분열되었어요. 안 합쳐집니다. 한기총의 분열 사태는 모 목사 때문에 일어난 것이예요. 이 일로 한기총 회장을 지내신 목사님도 피해자가 되었지요. 그의 모든 명예가 무너져버렸어요. 모 목사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WCC 총회라는 묘한 것을 이용하여 합동측 인사들 발목을 잡은 것이에요. 이것은 통합측의 책임도 있지요. 합동측은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없어요. 총회장이 아무것도 못하고, 모 목사의 반대로 끌려 다니고 실행위원회들도 그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니고 있어요. 합동측에서는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문제가

해결 될지 대상이 없어요. 통합측의 문제는 WCC총회 유치에 너무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Q 한 장총에서는 WCC 한국 총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 : 한장총은 WCC에 대해서 언급 안하기로 했습니다. 소수지만은 통합측이나 기장도 회원 교단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는 중립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Q 한장총에서는 WCC에 대해서 언급하는 문제는 너무 민감한 것으로 봅니까?

A : 아니요. 회원 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WCC총회 부산개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입장이지만 한장총에서는 여러 회원 교단을 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기로 했습니다.

Q 그럼 고신 교단이 WCC총회의 부산유치에 대해 언급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그건 내가 통합측 인사들에게도 이야기 했어요. '누가 와서 우리와 의논이라도 하고 WCC에 가서 교단을 다 참여시키겠다고 약속 했었어야지 의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냐? 부산사람들하고 의논 해봤나? 교단사람들하고 부산사람들하고 주변 지역사람들하고 아무 의논도 안하고 너희가 초청했으니깐 너희가 해라. 우리 보고 참석하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가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가는 것이 맞지. 그래야지 어떻게 의논도 안하고 합의도 안하고 부산 지역 전부 참석한다는 약속부터 한 것은 너희가 실수했다. 백배 사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Q 한국 장로교회사에서 통합과 합동이 사실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도 WCC문제가 아닙니까?

A : 통합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통합측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Q 고신측 교회들은 대부분 서부 경남에 산재해 있는데 이렇게 보면 WCC총회 부산 유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 입장에서는 WCC 부산총회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처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됩니다만.

A : WCC 총회가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와 합통측이 반대 입장인데... 보수교단도 이광섭 목사가 했는지, 길자연 목사가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2014년 WEA 대회를 초청 해놨거든요. 그럼 그때 진보쪽에서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Q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는 생각이십니까?

A : 교단에서 WCC 정관이나 신학적인 입장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Q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제를 돌려서 목사님의 목회 활동과 한빛교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빛교회 개척배경과 목회철학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 한빛교회는 내가 개척한 것은 아니고, 용지동교회와 변재창 선교사가 했습니다. 당시 창원이 기계 공단으로 지정되고 개발 되면서 타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결론적으로 농촌사람들과 도시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빛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타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용지동교회 다음으로 사광교회인데, 사광교회는 지역주민 위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Q 목사님께서 변재창 선교사님 후임으로 오셨을 때 교회 상황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그 때 교회 상황이야 무척 어려웠지요.

Q 그 당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봉사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A :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교회당 건축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쪽지역에는 개발 보상이 있었고 서울서 내려온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예배당이 마산에 있었기 때문에 마산으로 다 갔죠. 그 당시에 동남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온전한 예배처소를 마련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건축위원회 구성했습니다. 제가 1979년 3월 8일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깐 3월 8일에 부임해서 4월 첫째 주에 건축위원회 조직하고 그 다음 79년 12월에 부지를 샀어요. 빚을 내어가지고. 지난 33년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요?

Q 한빛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A : 80년 1월 24일 이 땅[현재 한빛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을 매입할 때였지요. 81년 5월 17일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빚을 내어 땅을 샀고, 예배당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어요. 제일 난감한 게 뭔가 하면 5년 동안 예배당 짓는 일에 매진하다보니 목사가 영적으로 탈진하는 것이었어요. 이사도 가야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그렇게 하다가 83년 11월에 준공하고 장로장립을 했는데 그래도 어려워서 84년 3월에 박종국 목사가 하는 월간목회 연구원으로 2년간 일하게 되었어요. 현장을 조금 벗어나 위에 올라가 이것저것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조금 좋아지게 되었지요. 전에 글도 썼지만 교회 부흥과 성장에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된 거지요. 물론 교회건물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게 최우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86년 10월에 옥한흠 목사가 주관하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자훈련 2기 세미나에 갔다 왔고 87년 2월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지난 2008년까지 제자훈련을 계속 해왔어요. 2008년까지 하다가 제자훈련을 해오면서 부족한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성령운동과 전도, 제자훈련은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풍성한교회에서 하는 '두날개 양육훈련'을 받아들였어요. 강점은 전도지요. 사실상 둘 다 약점이 있어요. 제자훈련은 성령운동과 전도훈련에 약점이 있고, '두 날개'는 전도는 강점이지만 인격 성숙 훈련이 없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접목하려고 했어요.

Q '두 날개 양육훈련'을 도입하게 된 건 2009년부터인가요?

A : 2008년 9월부터 시작 되었어요.

Q 한빛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A : 87년부터 훈련을 했으니까 사실 예배당을 옮기고 중간에 250명까지 성장했는데 건축문제 때문에 제직들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제직들은 건축을 그만두자고 했으나 저는 계속하자고 했는데, 이 일로 교인들이 180명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Q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A : 제자훈련을 하면서 서서히 회복 되었고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양적으로 부흥해갔지요.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해왔습니다. 지금은

장소 때문에 정체되어가고 있어요.

Q 한빛교회가 장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 지금은 살림을 내어주기로 했지요. 분립개척입니다. 개척하는 것이 또 다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Q 분립개척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분립개척 원리는 도외시 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성장과 분립개척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A : 분립개척을 계획한 이후 지금은 예배당을 짓고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보다도 누가 그런 통계를 내셨잖아요. '목사 한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00명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일이 다 캐어(care)해야 하고 가정적으로도 다 캐어해야 하는데 교인수가 너무 많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Q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빛교회는 이미 1000명이 넘었는데...

A : 변명하자면 부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부목사들이 캐어하는 것과 담임목사들이 캐어하는 것이 많이 다르죠. 나도 교회에 많이 미안하지요. 87년 제자훈련하면서 정기심방을 그만 두었어요. 심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1주일에 10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했어요.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줄기차게 했으니깐 심방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방은 평신도 리더들이 해줘야 한다고 했지요. 이것도 양면이 있어요. 담임목사가 심방을 해줘야 하지만 담임목사가 후안 까를로스(Juan Carlos)가 말했던가요, '나는 고아원 원장이 아니다.'라고. 언제까지 목사들의 손길을 받아야 되냐는 거지요. 제자훈련이 바로 평신도들을 리더로 세워서 목사가 하는 심방이나 양육이나 이런 것을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통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안에 나타나는 제국들은 다 망했고 제국주의자들도 다 망했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회 크게 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1000명 정도는 있어야 연합사역이나 개척사역이나 할 수 있겠더라구요. 지금 한빛교회는 주일 예배에 중고등부 빼고 1200명 정도 모이는데 하나 갈라 주어서 두 교회가 1000명씩 모이면 그게 교회성장이잖아요.

Q 목사님 생각에는 한 교회 교인이 1000명 정도 될 때 분립개척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A : 이 원리를 진작에 알았으면 제법 많이 했을텐데. 요즘 우리 교단이 '3천교회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립하는 교회가 10%가 됩니까? [개척을 기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미자립 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Q 고신은 개혁신학을 지향하는 입장인데 사실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교회성장에 관한 핵심 사상이 분립개척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상은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분립개척을 신학교에서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A : 우리는 신학교에서 분립개척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분립개척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가 하면 '두날개 양육훈련'에서 전도하는 것을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믿게 된 사람이 또 재생산을 해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깐 자기와 같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완전히 신앙에 정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재생산입니다. 구역 재생산을 하여 구역이 늘어나면 그다음 코스가 뭐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

회를 만들어 내는 거지요. 이전에도 2번 시도했는데 두 번다 실패 했는데 지금 와서는 안 된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게 뭐냐? 교육과 훈련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훈련 가운데서 계속해서 재생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해내야 된다고 훈련을 받으니까 건축헌금을 25억을 했잖아요. 땅은 교회가 샀고 예배당 건축은 25억 헌금으로 시작한 겁니다. 가는 사람 안가는 사람 구별 없이 연말에 완공하면서 갈사람 강제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 사람은 가능한 그 지역으로 가시고 소명감 있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교회가 교회 언약서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양 교회는 교회개척에 공동사역하고 협력한다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두 교회 연합해서 제3의 교회를 세우고, 세 교회가 합해서 또 하나 더 개척한다는 겁니다.

Q 분립개척 정신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교회성장 원리인데, 한국교회에는 아직 보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더 넓은 땅을 사고 더 큰 건물을 지어 이사하는 형태의 성장이 대세가 아닙니까?

A : 하지만 울산교회는 분립개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울산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울산교회에 박두욱 목사님이 시무하실 때 미포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분립개척 되었지요.

Q 분립개척한 모(母)교회와 분립개척된 자(子)교회 사이에 연합과 협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A : 운영독립은 해주는데 교회개척을 위해서는 함께 협력하고 선교사 파송과 선교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교회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이죠.

Q 서울에서 다섯 개 교회가 매년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A : 우리가 하는 분립개척은 서울지역의 5개 교회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교회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두 교회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을까요. 뭐랄까 좀 더 좋은 관계의 친밀한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Q 목회 성공하셨다는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후배 목회자들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 물론 후배 목사들과 부목사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설교를 통해서 80% 정도를, 적어도 교인들에게 만족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면 일단은 설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을 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훈련을 시켜야 역경을 겪어도 자기 신앙이 확립되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훈련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교회 자원 봉사자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교회는 다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노인대학, 자폐증 아이들이 오는 늘푸른 교실, 중앙보호센터 등과 같은 복지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교사들을 확보하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 250명, 늘푸른 교실에 60명, 모두 310명 정도의 교사들이 현재 봉사하고 있어요.

Q 훈련을 통해 리더를 양육하는 것이군요.

A :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구역장들도 거의 그렇게 훈련 받습니다. 100% 훈련 받습니다. 훈련 안 받으면 구역장 안 시킵니다

Q 요즘 젊은 목회자을 보실 때 목사님 세대와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 싶은, 그래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까?

A : 모르겠습니다만 내 눈으로 보니깐 너무 안일해서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는 식이예요. 왜? 100명이나 1000명이나 밥 주고 사택 주고 차 사주고 다하니까.

Q 목사님 세대에는 목회에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 젊은 목회자들은 열정이나 사명감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A : 이전에는 그랬어요. 1주일에 10그룹 맡아서 하면 옆으로 볼 새도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하는 말을 들어 보면 '목사님, 제자훈련을 하면 사례 많이 줘요?' 라는 식이예요. 우린 사례 많이 받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레벨 업(level up) 시켜줘야죠. 그래야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몫들을 다 감당할 수 있지요.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밖에 나가면 밖에 적응해서 살고 들어오면 교인이고 그렇잖아요. 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목회의 필수입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내게 본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훈련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Q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명령에서도 제자를 만들기 위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일, 즉 교육은 목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A :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이 자기 은사가 아니라고 말해요. 목사에게 가르치는 은사 없으면 안 되지요. 목사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와 교육, 섬김, 치유 등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는 것은 목사의 직을 내놓아야 해요.

Q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는 바로 목회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교단 총회장도 하셨고 교단 일을 두루 해보신 것으로 아는데 교단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미자립 교회가 많아요. 목사가, 교회가 힘이 없으니깐 사역에 힘이 없어요.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시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겁니다.

Q 미자립 교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 합동측에서도 그렇지만 미자립 교회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들 중 도시교회에서 내는 지원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다른 방법이 없고 또 다른 탈출구가 있다면 농촌교회 노인들 문제인데 이건 불교가 먼저 점령을 했어요. 암자들 같은 곳이 숙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 시골 노인들 장례까지 다 치러주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교회당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시설물이 있어야 요양소로 허락해줍니다. 복지는 사실 복음하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교회라는 기관에 들어와서 숙식 제공을 받을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교단이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제로라고 보고 있어요. 신숙자 씨 문제가 나왔을 때도 교단의 입장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천안함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우리 교단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지요.

Q 한국 교회가 시정해야할 점, 대사회적, 대정치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대사회적, 대정치적인 심각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지난번에 그게 하나 발족되었어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조직 되었다고 말은 안하는데 조용기 목사, 김삼환 목사, 이용훈 목사 등과 성시화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주도하여 사회공공 정책위원회인지 뭔지,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교회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기구가 조직 되었어요. 그 쪽을 통해서 대 사회적인 문제나 대 정치적인 문제가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Q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고신 교회가 기여해왔거나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지금 각 연합회에서 고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세가 작아서 무시를 하지만요. 어디든지 고신이 들어가야 구색이 갖춰지는 형편인데 그게 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신은 한국교회의 중심을 잡아주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들이 필요해요. 고신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진보나 보수,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거지요. 한국 장로교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개혁성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도적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고신이더군요.

Q 일반적으로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과 목회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A : 신학은 기초이고 목회는 그 위에 세우는 기둥인데 신학이 없으면 올바른 목회가 안 되잖아요.

Q 마지막으로 목사님 개인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딸이 둘 있는데 다 결혼하고 큰 사위가 우리 신대원 54회 졸업생이고, 분당샘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아들은 이번에 신대원 졸업하고 모든민족교회 전도사로 있습니다. 제 위에 형제들은 고인이 되셨지만 6남매 중에서 4남 2녀인데 두 분이 장로님이시고, 두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큰 자형이 목사이셨고 큰 형님 돌아가시고 막내 자형도 돌아가시고 세 사람 남았네요.

Q 목사님 가족은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A : 외가쪽으로도 외삼촌 강규철 목사님이 계시고, 외가도 외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친가로도 5대 신앙이고 외가로도 5대 신앙입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께서 신앙을 받아들이셨지요. 외삼촌이 강용환 목사님이지요.

담임목사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회장으로 분주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장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